

사례를 통한 분식 회계 예방 교육

조성표,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최근 몇 년간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되어 우리나라 회계의 신뢰성 문제에 큰 의문이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회계윤리 교육의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 한 방법은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이다. McNair and Milam(1993)은 강의보다는 사례를 통한 토론 방법이 윤리를 가르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oodpaster(2002)도 사례를 통한 윤리교육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형태로 정리된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분식회계 사례가 정리되어 회계학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분식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례를 활용하여 분식회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사례를 개발하고 교수용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식회계 사례를 통하여 분식회계 예방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한다. 이 사례에 분식회계에 대한 토론 주제, 질문 사항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론에 활용될 각종 지침 및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분식회계 사례를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과, 사례의 토론을 통한 회계윤리 교육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식회계 사례를 통한 회계윤리교육은 개인적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각자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식회계의 정의와 사례 교육

“부정”은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회계감사준칙 240.4). 부정은 법률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회계 부정은 주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와 관련된다.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는 그 성격상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유용”에 의한 왜곡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은 외환위기 전후 발생한 주요 분식회계사례를 요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실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사례 형태로 정리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분식회계 사례

기업	분식규모	분식 회계연도
대우계열 12개사	22조9,000억원	1997~1998년
기아자동차	3조148억원	1991~1997년
아시아자동차	1조5,588억원	1991~1997년
SK글로벌	1조5,587억원	1999~2001년
현대상선	1조4,513억원	2000~2002년
한보철강	6,920억원	1990~1996년

자료원: 금융감독원 (2000년 9월 15일) 일부 수정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분식회계 사례가 정리되어 회계학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각종 감사교과서에서는 많은 포괄적 분식회계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 웹사이트 Antifraud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Resource Center (www.aicpa.org/antifraud/homepage.htm)는 분식회계사례와 이들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워터루대학교(University of Waterloo)의 회계윤리센터(Centre for Accounting Ethics)는 분식회계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www.arts.uwaterloo.ca/ACCT/ethics/boritz/index.html).

III. 분식회계에 대한 성경적 견해

성경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기 힘들지만, 이와 유사한 본문이 누가복음 16:1-10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마치 분식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지기가 본인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혜롭게 대처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불의하여 보이는 재물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본래 비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을 끌어내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양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분식회계는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속임수이다. 거짓과 속임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명백하다.

IV. SK글로벌 분식회계사례

지난 1970년 대 중반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인 SK글로벌도 급속한 외형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밀어내기 수출' 등의 부작용으로 SK글로벌에 부실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해외투자 실패와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부실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다.

이에 SK글로벌은 부실 규모가 노출될 경우, SK글로벌 부도는 물론 그룹 전체의 신용 하락마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95년부터는 SK글로벌의 회계는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SK글로벌은 2001 회계년도에 은행명의로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 1,881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숨기는 등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 9,975억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그런데 SK글로벌의 전체 부실규모 1조 9,975억원 중 1조 3천억원 가량은 이전 연도의 누적분이 넘어온 것으로 분식의 누적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SK글로벌은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이 괜찮은 기업'인 것처럼 꾸며졌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왔던 것이다.

SK글로벌은 2001년도 이익잉여금 1조 9,975억원을 과대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우선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1조 1,881억원의 외화은행채무를 숨겼다. 또한 가공 외화외상매출채권 1,498억원 계상,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447억원 미계상, 예금 등 금융자산 4,440억원 과대 계상, 재고자산 670억원 과소 계상, 투자유가증권 2,501억원 과대 계상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규모가 가장 컸던 외화외상매입금은 유전스(Usance: 기한부어음)로 기업이 외상으로 수입할 때 활용하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돈을 주는 어음이다. SK글로벌은 유전스가 1조 1,881억원에 달했지만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유전스가 없는 것처럼 부채를 누락시킨 뒤 이런 상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왔다. 감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SK글로벌의 위조자료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2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V. 분식회계 예방 사례교육 지침

본 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분식회계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분식회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귀결된다. 따라서 당위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본인이 분식회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식회계의 폐해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도록 하여 스스로 바람직한 결정에 이르는 판단능력과 결단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분식회계의 의도와 가능한 이유, 분식회계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임직원 및 회계 감사인에 대한 책임, 증권시장 및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분식회계 대처방안을 제도적, 기업 및 개인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에 대한 주요 토론 쟁점과 예를 제공하고 있다.